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2018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 인사 청문 개요

가. 인사청문 대상자

-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후보자(김경호)

나. 인사청문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17.4.14.)

2. 인사청문 실시경과

가. 인사청문 실시경위

- 2017. 4. 14.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 2018. 8. 3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선임의 건 의결
- 2018. 9. 10.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회부
- 2018. 9. 17.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구 분		위 원 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위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광호 위원
위 원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위원, 권영희 위원, 김상진 위원, 김창원 위원, 송도호 위원, 이태성 위원, 이호대 위원, 채인묵 위원, 최웅식 위원, 최정순 위원
	자유한국당	이성배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

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일 시	안 건	심 사 경 과	비 고
'18.9.3.(월) 16: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 원 장 : 김정태 의원 - 부위원장 : 박순규 의원 - 부위원장 : 이광호 의원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8.9.17.(월) 10:00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김경호) 인 사청문회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김경호) 인사 청문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장소 :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3.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등

가.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직무수행계획서 등 사장후보자 채용 시 제출한 서류, 임원추천위원회의사록,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 변동내역과 민원사항, 가락몰 설계 변경내역, 공사의 부채내역, 도매시장법인의 현황과 지정요건, 포장화 및 하차경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일자리 확대 계획, 도매시장 내 부당거래 현황 등

나.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내용
 - 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인사와 조직 관리, 공사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전략, 중앙부처와의 협력사항,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 개선,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 답변서 <붙임 : 참고자료 5>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가. 위원장 인사말씀 요지

- 오늘 회의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서울시민들은 물론, 생산자인 농어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임.
-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농수산물식품공사를 앞으로 3년간 이끌어 나갈 사장 후보자가 공기업의 대표로서 도덕성과 경영능력

그리고 업무 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김경호) 정책 소견발표 요지

-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여 년간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상수도사업 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광진구 부구청장과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등의 업무를 역임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
- 농수산물 유통분야는 직접적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에 대한 주변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나,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체득한 빠르고 뛰어난 학습력과 추진력을 가진 해결사로서, 가락·강서·양곡 도매시장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공사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농수산물 유통혁신을 이루겠음.
- 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 업무는 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② 청과직판 활성화 및 도매권 잔류 청과직판상인의 원활한 가락몰 이전, ③ 경매제 중심의 거래방식 다변화, ④ 공기업으로서의 신뢰회복이며, 향후 30년 후에도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음.
-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믿음이 가고 친절한 시장, 유통발전을 선도하고 상생을 실천하는 시장을 위해 유통인과 공사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함께 만들어 가겠음.

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김경호)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1) 사장으로서의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등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농어민신문, 농업경영인증양회 등에서 농촌 및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모르고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p>	<p>○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충분히 이해함. 명예퇴직 전부터 진로 탐색의 고민이 있었고 공사 사장 지원을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장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므로 도매시장 관리,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최고의 실무 전문가인 공사 직원 290명과 함께 슬기롭게 문제들을 극복하겠음.</p>
<p>○ 시설현대화 사업 등 가락시장에는 다양한 현안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인과의 갈등 해결 및 조정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본인의 업무 추진력과 갈등 조정력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p>	<p>○ 서울시 재직시절에 임시, 한시조직에 많이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교통개선특별과장 시절 버스사업자와 재정지원금 협상에서 조정력을 발휘해 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음.</p>
<p>○ 사장 채용에 대한 공고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지원자격이 완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의 자회사 사장에 대한 자격 요건이 더욱 전문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요하고 있음. 이런 부분에서 코드 인사 등의 논란이 발생한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p>	<p>○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장 채용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의원님의 우려를 이해하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작년 말에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까지 경력에 공백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였나?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였나?</p>	<p>○ 명예퇴직 이후에 코수술을 하고 4월 중순까지 선배 공무원인 중랑구청장 후보에 대한 공약 개발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음. 이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 캠프와 공약 공조를 위한 활동이 일부 있었음.</p>
<p>○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사장 및 이사는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이사 10명 중 여성은 1명이며 직원 비율 역시 여성의 비중이 낮은 편임.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p>	<p>○ 이사의 경우 조례상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또한 직원의 경우에는 평균 나이가 43세이고 남자는 44세, 여성은 36세로 8년 차이가 나며 시간이 지나면 그 비율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봄. 무엇보다 평등한 성 차별 없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p>
<p>○ 본인이 사장 임명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미 퇴직 당시부터 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아닌가?</p>	<p>○ 유통분야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나 30년간 공직생활을 통한 관리자로서의 경험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님이 선임한 것으로 생각함. 작년에 선거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공사 사장 지원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내정은 없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노조가 사장 임명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p>	<p>○ 본인의 성격이 괴팍하다 등의 이야기가 많이 돌았으며 유통주체 중 도매법인에 치우쳤다는 소문이 돌아 직원들의 고충이 커질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 전혀 사실무근이고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 내부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음.</p>
<p>○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매시장에서 밀어부치기식의 추진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p>	<p>○ 추진력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통 능력도 갖추고 있음. 과거 복지건강실장으로 재직할 때 숫자가 많고 화합이 잘 안되는 장애인단체들과 4주간 집중회의 끝에 서울시 장애인 희망사업 종합계획 만들어 발표한 경험이 있음.</p>
<p>○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의 재산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인데 공직생활 30년간 마이너스인게 이해가 잘 안되며 이런 상황에서도 강남에서 전세를 사는 것이 맞는지?</p>	<p>○ 본인만 보면 마이너스이나 본인과 배우자는 완전한 경제공동체로 배우자 명의인 전세가 있어 마이너스는 아님. 강남에 거주하는 이유는 막내딸이 과거 학교에 문제가 있어 전학을 위해 이사를 하게 되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각종 수상경력과 실적을 다양하게 적시하고 있는데 복지건강실장 시절에 왜 노량배수지 사고를 수습하였고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4개월만 재직한 것인가?</p>	<p>○ 노량배수지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기피해 정무부시장이 수습을 총괄하고 본인은 유가족과 협상을 수행하였음.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사고수습이 완료되어 교통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음.</p>
<p>○ 장모님과의 채무관계(4억 6천만원)는 증여로 볼 여지가 많음. 이자지급 등에 대한 은행 간 거래내역이 있는가?</p>	<p>○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에도 논란이 되어 소명하였음. 장모님이 토지보상금을 지원해준 것인데 현재 처가 장인, 장모에 대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p>
<p>○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데, 공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서울시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듦. 사장 취임 후 3년 그리고 연임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p>	<p>○ 공사의 수입구조가 경직적임. 농안법의 시장사용료는 매출액의 1%, 시설사용료는 재산가액의 1% 등으로 법적 제한이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산가액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42% 내외로 반영되고 있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2016년 당시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수를 줄이고 임금 격차도 좁히겠다고 밝힌 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비정규직원이 아직 있음. 2018년까지 약속한 것에 맞춰 주시기 바람. 더 큰 문제는 임금 격차임. 클린아이 공시내용을 보면 일반 정규직 2017년 기준 1인당 6,300만원 연봉인 반면, 상용 정규직원은 3,400만원으로 되어 있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어도 아직 임금 격차가 크므로 꼭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한 생각은?</p>	<p>○ 정확한 임금까지는 모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보수 체계를 맞추고자 호봉 승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하겠음.</p>
<p>○ 3년 임기 내 해야 하겠다는 계획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p>	<p>○ 채소 2공구 사업을 반드시 착공해 진척이 되도록 하겠음. 시장도매인제나 상장예외품목,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체계 마련 등을 위해 조례 개정 승인을 받고 농안법의 개정 등은 임기 내 가급적 빨리 완료하고 싶음. 아울러 시설현대화사업 기조에 맞춰 내년 배추까지 하차거래를 완료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지난 30년간 훌륭한 공직 생활에도 사장 후보자로서 코드 또는 보은인사라는 의문에서 자유롭지 못함. 코드인사의 문제점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항상 경영자율권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임. 특히 도매시장과 같이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는 곳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장의 코드와 공사의 경영자율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p>	<p>○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경영자율권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시에서도 공사 사장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p>

(2)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가락몰로 이전을 반대한 청과직판 상인들 176명이 임시매장에서 영업 중이나 가락몰의 지하 청과직판 매장개수는 약 600여개로 임시매장의 이용시간이 만료되면 176명이 이전가능한가?</p>	<p>○ 가락몰은 도소매 분리를 통한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소매권역으로 건설·운영 중임. 청과, 수산, 축산 직판상인이 가락몰로 이전했는데 과거 실외 영업보다는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봄. 임시매장의 청과직판 176명은 이미 가락몰 지하 1층에 임대계약은 되어 있어 임시매장 이용기간이 만료해도 자리가 부족하지 않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도매시장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 현재 공사는 설계추진협의회, 중도매인 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사안마다 이해관계인들과 적극 소통에 힘쓰겠음.
○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급기야 현재는 기재부에서 사업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기재부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나올 것 같은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안은?	○ KDI에서 수행 중인 적정성 재검토에서 사업비 증액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는 아직 고민하지 못하였음.
○ 667명 직판 상인 중 480여명이 가락몰로 이전하고 176명이 미이전 중임. 임시매장으로 다농 이적지에 100여명이 영업 중인데, 이들의 열악한 영업환경에 대한 대책은?	○ 1.5평씩 점유해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문제는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음.
○ 후보자가 생각하는 중점 사업이 네 가지로 분류됨. 시설현대화, 가락몰 이전, 거래제도 다양화 등임. 그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의 증가로 공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이해당사자가 많고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업임. 현재 사업적정성 재검토 중이고 융자금 부담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이자율을 낮추고 임대료 등의 현실화로 공사의 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필수 시설은 정부 예산으로 해결해도 냉장시설 등 부대시설은 민자 유치 방식으로도 조성이 가능하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p>	<p>○ 부대시설 중 냉동창고 건립은 대체 냉동창고를 건립해야 하는데, 민자유치가 쉽지 않다고 들었음. 가락몰의 경우 외곽은 공사가 하고 내부 가동 중인 저온 창고는 상인이 부담하고 있음.</p>
<p>○ 도매권역은 가락몰에 비해 훨씬 넓은데 예산부족으로 단층 구조로 설계되었음. 완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으로 2, 3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다각도로 생각해서 더 많은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p>	<p>○ 도매시장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완공 시기가 크게 지연되지 않는 선에서 창의적인 방안을 고려해보겠음.</p>
<p>○ 도매시장법인은 개인 또는 대기업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구조이며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발표 중인데, 동반성장지수를 고려해 본 적 있는지?</p>	<p>○ 동반성장지수는 고려하지 못하였음. 동반성장지수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음.</p>

② 거래제도의 개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상장예외품목은 상장경매 위주의 거래 제도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사의 불명확한 행정으로 최근 수입바나나 등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향후 도매시장의 혼선과 유통인들의 불신을 막을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의 운영방안은?</p>	<p>○ 도매시장법인은 상장예외품목의 확대를 거부하고 있으나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확대해야 함. 농안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고 있으나 상장예외품목의 지정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p>
<p>○ 유통문제, 거래문제를 개혁하고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폐해를 개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시장도매인, 상장예외 품목의 확대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제동을 걸고 정부에서 불승인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p>	<p>○ 경매제, 상장예외품목, 시장도매인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방식들이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농안법에 제도는 도입했으나 시장에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므로 농안법이 현실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에 총력을 다 하겠음.</p>
<p>○ 최근 수입바나나 등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2심에서는 승소할 자신 있는지?</p>	<p>○ 배추, 무를 상장예외로 품 곳은 더 큰 혼란을 겪는 셈이므로 그런 내용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제기해 승소토록 노력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공정위는 동화, 서울 등 4개 도매시장 법인들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사장 후보자에게서는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며 공사 차원에서 도매법인 담합 근절 방안은 무엇인지?</p>	<p>○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공사 차원의 담합 방지 대책은 결국 경쟁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봄. 2016년 말 도매법인 재지정을 하면서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조건을 붙였고, 도매법인의 경매사 채용 등 과거에 없던 지정 조건을 요구한 바 있음. 근본적인 것은 농안법 개정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보다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함.</p>
<p>○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기업식 운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함. 가락시장의 청과 법인 대부분이 대기업 자본의 소유임. 도매시장법인들의 기여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p>	<p>○ 1985년 가락시장에 경매제가 도입되어 자리를 잡았음. 영세한 생산자를 보호한 법인의 기여가 있었음. 그러나 공익성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봄.</p>
<p>○ 농안법에서는 도매법인의 평가실적이 저조한 경우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권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가 평가권을 가지고 있어 도매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된 곳이 거의 없는 상황임.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p>	<p>○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후에 도매시장법을 지정하고 그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음. 따라서 농안법을 개정하거나 평가권을 위임받아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는 지방자치, 지방분권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 노력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농안법이 제정된 지 40여년이 지나 시대에 뒤처지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농안법 개정 의향이 있으신지?</p>	<p>○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도 농안법의 19개 부분, 사실상 전부개정과 다름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며 향후에도 농안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p>
<p>○ 우리나라는 경매가 주된 거래방식임. 선진국의 경우 수의거래가 주된 거래방식임. 거래제도의 다변화로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시에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p>	<p>○ 수의거래의 가장 큰 취약점이 거래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점임. 따라서 공사는 수의 거래라도 가격 협상 과정의 기록을 의무화할 것을 고민하고 있음. 다만 가격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나중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 중임.</p>
<p>○ 소고기 등급처럼 농산물도 직원이 현장에 나가 등급을 매겨 모니터로 경매하고 가락동으로 오지 않고 구입처로 간다면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건비 등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20%만이라도 화상경매가 정착하면 물류비용이 줄고 좀 더 깨끗한 시장이 될 것이라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p>	<p>○ 현재 도매시장은 차가 와서 내리고 싼 거래를 중심으로 운영 중임. 화상경매와 샘플 경매의 경우 상품의 일부만 가져와서 경매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음. 농식품부도 제주도 도매법인 2개소와 연계해 화상경매 활성화 준비 중임. 공사도 경매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수산물 거래는 농산물 거래와 달리 산지에서 1차 경매를 함. 수입과일도 이미 결정된 가격 상태로 들어옴. 결과적으로 가락시장 내 수산물 거래는 이중 경매가 되어 비용이 증가되면서 도매법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p>	<p>○ 가락시장 수산물 취급량이 반토막 난 이유가 어찌보면 도매법인이 큰 기여없이 위탁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함. 대구북부시장이 수산시장인데 수산법인 3개소를 시장도매인으로 바꾸어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음. 이처럼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유통단계를 줄이거나 상장예외품목을 대폭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법인, 중도매인과 시간을 두고 협의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p>

③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퀘처스 검사를 하는데 물량대비 검사건수로 보면 하루 260톤이 검사됨. 전체 물량 8,000톤 중 260톤 검사는 적은 양인데 이것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생산지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는지 자료화되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은?</p>	<p>○ 공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 연구용역을 실시하니 현재 수준으로 약 95% 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지금처럼 사후가 아니라 생산, 출하단계에서부터 사전적인 예방 차원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퀘처스 검사는 정밀도가 높으나 샘플링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인원, 장비 증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해외의 경우를 보면 출하 전 단계에서 잔류농약을 예방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를 위한 실현방안이 어떠한지?</p>	<p>○ 정부차원에서 산지에서 모니터링 차원으로 농약 종류, 양 등에 대해 간간히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그 양이 적어 신뢰도가 낮음. 따라서 농민에게 출하 전 농약 살포 금지, 금지 농약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봄. 친환경유통센터는 안전검사 장비를 40대로 늘렸고 검사 인력도 21명으로 운영 중임. 차후에 수요를 정확히 살피고 필요시에 더 확대하겠음.</p>
<p>○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적이 자료마다 달라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본수산물 방사능검사 계획 중 일본 해류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 계획은?</p>	<p>○ 자료 정확도는 다시 확인해 정정하겠음. 축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공사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음.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조사 중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간이 측정장비를 구비해 연 3~4천 건씩 검사 중임.</p>
<p>○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은 공사의 고유 업무라고 보이는데 올해 민간위탁 명목으로 57억원을 보전받았음. 관련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 농수산물유통, 안전 관리가 농식품공사의 고유 업무임.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보조해주는지?</p>	<p>○ 친환경유통센터는 친환경농산물로 학생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학생 건강권은 교육청의 업무이면서 서울시와도 연관이 있었음. 본인은 공사 직영사업을 위탁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 못하였음. 학교급식법, 서울시 조례를 종합적으로 살펴 서울시와 상의토록 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친환경유통센터 직원은 몇 명인지? 학기 중에는 서울시 전체의 급식 재료의 공급을 맡으나, 방학 중에는 무엇을 하는지?	○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은 3개 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39명이 근무 중임. 주로 산지방문 등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음.

④ 기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7년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를 보니 펠릿 출하율이 14.24%, 강서시장은 30.51%로 가락시장 실적이 저조함. 펠릿 출하에 대한 지원내용과 펠릿 출하율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 차상거래는 교통 혼잡, 상품질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해 하차거래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포장비, 인건비, 펠릿임차료 추가 비용이 발생함. 그 부분에 대해 품목별로 3천원부터 1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8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 최근 제주도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펠릿 출하로 인한 비용 증가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한 바가 있음. 농민이 아닌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포장비 등을 부담하거나 이를 유예하는 방안은 가능한가?	○ 제주도 경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유예는 불가능함. 현재 제주도와 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가락시장에 재직 중인 하역노조원 수는? 시설현대화로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공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장려금 등 구제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음. 대책이 있는지?</p>	<p>○ 청과와 수산 부류의 하역노조원 모두를 합치면 1,370명임. 의원님 말씀대로 기계화로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얼마 전까지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수입도 불안정하므로 하역법인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했음.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조합별로 1,200~3,5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냄. 기존 직원이 이탈하는 경우 조합 가입비를 환급해줘야 하므로 환급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공사에서는 여력이 없음. 하역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어려움이 있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역노조의 법인화가 필요하다 생각함. 일용근로 형태이므로 노조에서 그간 해오던 관행을 바꾸기 어렵겠으나 지게차, 전동차 등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당사자인 하역 노조분들과 적극 논의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얹는 관행이 해결되었는지?</p>	<p>○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수수료 외에 비용을 출하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1심에서 패소했음. 공정위에서 도매시장법인들에게 11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처분이 앞선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 농림부와 협의하고 도매법인의 과도한 이익률에 대한 제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가락시장 외형이 2004년 등에 비해 2배 정도 성장했으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봄.</p>
<p>○ 도매시장법인인 동부팜청과는 사모펀드에게 인수된 것인지? 사모펀드와 같이 농수산유통과 관계없는 기관들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시도가 많은지?</p>	<p>○ 동부팜청과는 사모펀드에게 인수됐으나 3년 이내에 정상적인 주체에게 넘겨야 한다고 공사에서 주장해 2016년에 지분이 이전되었음. 법인 재승인 조건으로 대주주가 주요 주주가 바뀔 때 사전 승인을 바꾸도록 바꿨으나 내부지침이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나, 농안법에 본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 중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을 보면, 청년 9명, 어르신 15명 채용할 예정임. 이해관계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을 것 같음. 노인 일자리도 그러할 것 같은데 도매시장 내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가 없는지?</p>	<p>○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채용 계획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음.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체 등을 통해 도매시장 관련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봄.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도매시장 기반 수출 사업과 온라인 판매사업인 가락24가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p>
<p>○ 부당거래 자료를 보니 최근 2년간 부정거래 사례가 굉장히 늘었음. 그전까지 단속이 부진했던 것인지?</p>	<p>○ 그렇지 않음. 시장개선팀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설됐고 그 조직의 활동 결과라고 볼 수 있음.</p>
<p>○ 중도매인의 승계 조건이 어떠한지? 본인 외에는 자격 승계가 되지 않고 가족에 한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계에 한하다 보니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승계하고 있음. 그렇다 하면 꼭 법인을 통해서 직계 가족에만 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p>	<p>○ 중도매인은 대인허가임. 본인이 그만두면 허가가 없어지게 됨.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조직화하는 경우가 거래 규모나 거래 안정성 측면에 장점이 있으므로 대규모, 법인화를 권장해왔음. 개인 중도매인에 대해 새로운 승계통로를 열어주면 기존의 법인화 기조와 충돌이 발생함.</p>
<p>○ 도매시장 주차료가 얼마인지? 주차 징수원 급여와 쇼핑하는 사람들의 주차료 부담을 고려해 무료화하는 것은 어떤가?</p>	<p>○ 주차요금은 2시간 이내 1천원이고 10분당 500원씩 부과됨. 하루 최대 금액은 31,000원임. 15분 이내일 경우 무료임. 무료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공사 기본 정책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양곡 도매시장 부지 이전시 대체 부지가 설정되어 있는지?</p>	<p>○ 양재에 3만평 규모로 양곡시장에 있으나, 염곡동에 6천평 규모로 이전 예정지를 잡아 놨음. 양곡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국내산 잡곡류를 취급하는 시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임.</p>
<p>○ 올해 폭염으로 농가에서 물건 품질이 하락되고 추석 물량이 비상인 상황임. 벌써 주부들은 김장철 대비에 고민 중임. 폭염 이후 공사가 어떤 대처를 했는가?</p>	<p>○ 농산물 수급에 대해 공사는 특별한 수단이 없음. 중앙부처에서 비축물량을 시장에 풀어 물가 안정화를 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여름 폭염 관련해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시설을 확보해야 함.</p>
<p>○ 도소매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서 가락24를 운영 중임. 그런데 그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직무수행계획서에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변화가 미흡한데 이에 대해 계획하는 부분이 있는지?</p>	<p>○ 가락24는 사업 운영자를 바꾸었음. 2월에 교체해 그 실적이 떨어졌음. 현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전문가로 시간이 지나면 훨씬 좋은 성과가 기대됨. 가락시장은 유통정보를 만들어 전파하며 환류하는 곳임. 차가 시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유통정보를 관리하면 시장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력이 된다면 이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보려고 함.</p>
<p>○ 연령별 경제활동 조사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비중이 38%인데,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은 78% 이상이 50대임. 가락시장 유통인의 고령화 해결 방법은?</p>	<p>○ 가락시장 유통인 중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뭉쳐서 법인화를 유도하는 등 유통인의 세대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 제주도민은 1년 유예를 요청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육지 양배추의 진행 사항은 어떤지?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 지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p>	<p>○ 다른 품목,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주 양배추만 특별히 유예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음. 육지 양배추의 하차거래는 큰 규모 출하자들이 협조해 잘 진행되고 있음. 물류지원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출하시기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함.</p>

라. 서울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 최종발언 요지

-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림
-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과 지적을 통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음
- 앞으로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사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공영 도매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나아가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음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내부의 소통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시의회와의 화합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음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임직원들과 한 마음이 되어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5. 인사청문 요약 및 종합의견

가. 경력능력 등에 관한 인사청문 요약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가 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식견, 업무 이해도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 및 의견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무원 출신의 후보자가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공사의 사장으로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는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여 년간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광진구 부구청장과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등의 업무를 역임한 바가 있음.

후보자는 공무원 경력기간 동안 신설부서나 새로운 업무가 부여된 한시조직 또는 임시조직에 차출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업무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어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 오면서 조직관리, 사업관리, 종합기획력, 소통과 협치 능력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명하나 농수산물 유통분야는 직접적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유통주체들의 반대와 우려가 있었음.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유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

고 면대면으로 소통하며 경험이 많은 공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겠다고 소명하였으나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둘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

공사 당면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유통인단체 등 이해관계인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음.

하지만 현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비 증가 문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이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임.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유통제도의 개선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통주체 간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능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음.

후보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공무원 재직 시절에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의 경험을 근거로 소통과 협치를 해결방안으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셋째,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거래제도의 개선에 대해

상장경매제도가 원칙적인 거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제

도하에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성이 없는 대기업 자본이 대주주로 구성된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주체들의 발전을 외면하고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어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공사는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과 상장애외품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거래제도의 변경은 유통주체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으로 유통주체들의 합의를 통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되며, 그간 공사는 불투명한 행정으로 유통주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바가 있음.

특히 최근의 수입바나나, 포장쪽파에 대한 상장애외품목 지정에 대한 소송에서 공사가 패소하게 되어 7개월 만에 상장애외품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도매시장의 혼란이 초래되었음.

따라서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상장애외품목의 지정에 있어 동일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유통주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 효율화라는 거래제도 개선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넷째,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방안에 대해

공사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873개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일평균 105톤의 급식재료를 공급해 학생들의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음.

하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공급이 집중되어 있고 사립학교가 많은 중·고등학교에는 공급비율이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해 공급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샘플링 방식을 취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성 검사 관련 장비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를 제고해야 함.

나. 종합의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김경호)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등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했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 출신인 후보자가 농수산유통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전문성 논란과 함께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의 개선 등 공영 도매시장의 각종 현안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및 소명을 종합한 결과 과거 경력과 재산 형성 및 거주이전 등 개인적인 문제에서 특별한 도덕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과거 공직생활에서 발휘되었던 추진력과 소통력으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김경호)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함.

향후 후보자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지적 사항과 다양한 정책 제안을 유념해 충실히 공사 경영에 임해줄 것을 권고함.

6. 첨부자료

-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김경호) 주요 경력
-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참고자료 4]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요 및 실시계획(안)
- [참고자료 5]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김경호) 주요 경력

1. 성 명	김 경 호 (金景鎬)
2. 생년월일	1959년 12월 20일
3. 학 력	1979. 2.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 졸업 1986. 2.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3. 6. 오레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4. 주요경력	2011. 12. 구로구 부구청장 2013. 08.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장 2013. 1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015. 06.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2016. 06. 광진구 부구청장 2017. 12.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 위원명단 >

구 분		위 원 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위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광호 위원
위 원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위원, 권영희 위원, 김상진 위원, 김창원 위원, 송도호 위원, 이태성 위원, 이호대 위원, 채인묵 위원, 최웅식 위원, 최정순 위원
	자유한국당	이성배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

< 직원명단 >

직 위	직 원 명
수석 전문위원	강상원
전문위원	주우철
의사지원팀장	신익수
입법조사관	박태현, 김성만, 김나래
주 무 관	이강수, 이수호, 이미라
입법지원관	노혜미, 신우철, 김용우, 최범준, 박은샘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일 시	안 건	심 사 경 과	비 고
'18.9.3.(월) 16: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 원 장 : 김정태 의원 - 부위원장 : 박순규 의원 - 부위원장 : 이광호 의원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8.9.17.(월) 10:00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김경호) 인 사청문회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 과보고서 채택의 건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김경호) 인사 청문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 과보고서 채택	※장소 :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참고자료 4】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 인사청문회 개요 및 실시계획(안)

1 청문개요

□ 목 적

- 2017. 4. 14자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체결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하여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17.4.14)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설립예정 포함)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17.4.14)

3.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별지 2>의 내용이 포함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인사청문회 진행방식

- 위원회는 임명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선서를 하게 한 후 임명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

-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나 서면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음.
- 위원별 본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음.

자료제출요구

-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거쳐 서울시 및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임명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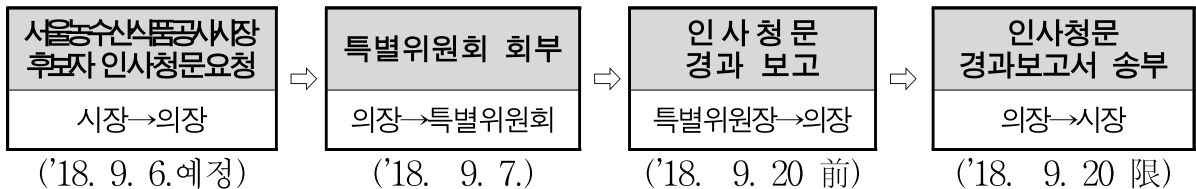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재사항
 - 청문 개요, 청문특위 활동경과, 청문 실시 내용, 심사결과 요약, 첨부자료 (임명후보자 이력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인사청문계획서, 자료미제출 사유, 서면질의 답변서 등)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함.

2

청문 실시 계획(안)

□ 인사청문회 추진절차



※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간 시행

- 인사청문 요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

< 제출 서류 >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병역사항현황서,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재산보유현황서)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첨부)
6. 주소지 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7. 자기소개서
8. 직무수행계획서
9.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10. 서울시장이 사장 추천후보자 2명중 1명을 사장으로 결정하게 된 사유서
1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인사청문회 준비

- (청문실시) 위원회는 인사청문 기한, 추가 자료 제출 기한 등 인사청문 실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인사청문일 지정
- (임명후보자 출석) 청문개최 3일 전까지 임명후보자에게 출석요구
- (질의요지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질의요지서를 청문 개최 48시간 전까지 서울시 및 청문대상 기관에 송부
- (추가자료) 임명후보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일괄하여 서울시 및 청문대상 기관에 추가자료 요구
 - 임명후보자는 청문 개시 1일 전까지 요청한 자료 제출
- (서면질의) 임명후보자에게 서면질의 할 사항은 청문개최 3일전까지 송부하고 청문대상자는 24시간 전까지 답변서 제출

인사청문 실시 : 의사일정(안), 2018. 9.17.(월)

안 건	비 고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경제 위원회 회 의 실

인사청문회 진행순서

- ① 위원장 인사말씀 및 안건 상정
- ② 사장 후보자 선서 및 소견발표
- ③ 질의 및 답변
- ④ 후보자 최종 발언

□ 인사청문 실시

- (청문시간) 청문일은 1일 이내
- (청문분야)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검증
- (진행형식)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진행순서) 선서, 모두발언(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설명)→ 질의답변(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 청문결과 작성

□ 청문결과 제출

- (기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 실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
- (내 용) 청문 개요, 청문특위 활동경과, 청문 실시 내용, 심사결과 요약(임명후보자의 직무적합성, 해당 직무수행능력·적격 여부 등), 첨부자료(임명후보자 이력서, 위원 명단, 인사 청문 계획서, 자료 미제출 사유, 서면 질의 답변서 등)
- (제 출) 의회 의장은 청문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

□ 기관장 임명

- 시장은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임명여부를 결정하며, 인사청문 결과는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않음
- 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휴무, 공휴일 제외)에 시장에게 청문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장 임명 가능

【참고자료 5】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I. 사장으로서의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등

① 서울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 서울농수산물공사 사장에 응모한 이유 및 사장 임명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의 공무원 출신의 이력과 경력이 서울농수산물공사 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은 무엇이고, 본인은 얼마나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 생각인가?
- 서울농수산물공사 후보자로서의 운영소신과 포부는?
- 서울농수산물공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물공사의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물공사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사장후보자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② 경영철학 및 전략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현재의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경영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경영전략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경영상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책임·자율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 서울특별시의회의와의 바람직한 관계유지 및 발전을 위한 견해와 추진전략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 신입사장으로서 새롭게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 또는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업무영역이 있는가?
- 현재까지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잘못된 사업 또는 공사가 시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부정·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3 인사·조직관리 관련

- 정원 외 인력의 통합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는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관리 방안은 무엇이고, 내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원칙과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추진사업에 대해 노조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에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친환경유통센터 3곳, 자회사 2곳이 있는데 공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의 수요와 경쟁에 적합하도록 인력구조, 조직구조 등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자회사 규모가 본사보다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용역비 증가로 인해 본사의 경영수지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자회사 운영 개선에 대한 생각은?

II.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1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 인구·가구변화에 따른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전략은 어떻게 개편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현안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분야는 무엇이며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 해외 도시의 도매시장과의 경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방향은 무엇이며,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보완해야 할 정책분야와 사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채가 대폭 증가한 바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에서 평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공사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는데 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가락시장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매시장이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그동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자들이 공사 사장으로 부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와의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울시 출신 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와의 소통 대책은?

- 서울농수산물공사가 시설현대화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2019년부터는 원금상환도 해야함. 이에 따라 공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도매권역에 임시로 남아있는 청과직판과 식품관련상가 상인들이 있음.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락몰로 이전이 필요한데 이들을 어떻게 이전시킬 계획인지?
-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이 2005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6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가 2006년도 5,04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2012년도 전체사업이 7,582억원으로 늘어났음. 2018년도에는 이 보다 훨씬 더 증액된 9,841억원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음. 이 같이 당초부터 부족한 예산임을 알면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발생될 사업변경 등으로 늘어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중심의 도매시장, 어떠한 유통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미래형 도매시장을 꿈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3 거래제도 개선 관련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거래제도 관련 2004년 개장한 강서시장의 거래제도 병행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경매제도와 정가·수의매매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가락시장에서 상장품목과 상장예외품목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며, 그 차이는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가락시장은 거래제도의 다양화, 다시 말해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거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첨예한데,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가락시장 거래 제도를 두고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음. 여전히 도매법인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매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가·수의매매를 더욱 확대 시켜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앞으로 거래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최근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하차경매를 두고 제주농가와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공사는 금년 9월부터 농산물 하차경매를 시행키로 했고, 제주농가들은 물류비 부담가중 등 이유로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가락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불법거래와 무질서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임. 불법거래와 무질서에 대한 대책은?

4]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등 관련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가락시장이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가락시장내 수산부류의 냉동어류 무허가 분산상인 100여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수산중도매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고 알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 최근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조정한 개정조례 시행규칙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시행규칙 무효확인 소송, 바나나·쪽파·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 등 공사나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 도매시장법인이 이러한 행태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 친환경유통센터 3곳을 통해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자치구별로 급식센터를 개설하여 친환경센터의 기능이 정체될 가능성이 보임. 친환경유통센터의 강점은 무엇이며, 향후 발전계획은 있는지?

5 기 타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는 지난 3년간 가락시장을 기반으로 한 농수산물의 해외수출지원과 사이버도매시장 운영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하였음.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 전임 사장이 최근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 하였음. 사장 교체시기라 개편이 늦춰지면 조직 운영이 느슨해 질 수 있음. 공사의 직제와 정원 변경에 대한 생각은?
- 최근 전문지 언론보도는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가 일방적으로 유통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있음. 언론, 산지, 유통종사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 서울시 투자기관으로서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가 혁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I. 사장으로서의 역할, 경영 철학, 전략 등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1.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에 응모한 이유 및 사장 임명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현재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제도의 다양화, 유통·물류체계 개선 등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발전을 위한 중요하고도 새로운 과제를 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소통 부족 등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지난 30여년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기획, 산업, 환경, 교통,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소통, 협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 저의 이러한 경험과 시정철학인 소통, 협치, 공동체의 가치를 공사에 확산시켜 공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 농업·농촌과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고자 사장으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이 현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당면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특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유통·물류체계 개선, 안전성 검사체계 강화 등 선진화된 농수산물 유통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어 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2. 그동안 공무원 출신의 이력과 경력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저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사장은 조직·경영혁신, 유통효율화 등 공사와 도매시장을 잘 관리·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가락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과 더불어 거래제도 다양화, 유통·물류체계 개선 등 유통인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저는 서울시에서 신설부서나 새로운 업무가 부여된 한시조직 또는 임시조직 업무에 차출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업무나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어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 특히, 대중 교통 개편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하였던 버스 운송원가에 대한 수많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몇 개월에 걸친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이견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 저의 이러한 경험이 시기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중요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3.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고
본인은 얼마나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 생각인가?

- 한 기관의 장이 되려면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 청렴성, 책임감, 조직 운영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직판상인, 하역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무에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성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지난해 12월 명예퇴직 이후 농수산물공사 사장 응모를 준비하면서, 지난 4년간의 시회의 속기록, 공사에서 생성한 각종 업무보고서를 읽고 유통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언론보도사항, 유통전문가 면담, 사장 내정자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사 업무와 도매시장 유통의 전반에 대한 파악은 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면서 절실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면대면 소통과 현장

행정을 실천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
민국 최고의 농수산물 유통전문가인 공사 임직원들과도 충분히 상의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4.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로서의 운영 소신과 포부는?

-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모바일을 활용한 구매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락시장과 강서 시장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도매시장이 다른 유통채널과 경쟁해서 살아남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최종 고객인 구매자와 출하농어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믿음이 가고 친절할 시장, 유통발전을 선도하고 상생을 실천하는 시장이 되도록 유통인과 공사 임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5.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매시장을 통해 농수산물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3개의 도매시장은 출하 농어민에게 농수산물물의 안정적인 판로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또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현재 서울시 소재 873개(전체의 65%) 초중고등학교에 일평균 105톤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심하고 서울시민은 물론 출하 농어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6.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개혁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현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거래제도 개선, 유통·물류체계 선진화, 사이버도매시장 운영 등 과거 해보지 않은 대규모 사업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사의 개혁과제는 첫째, 시설현대화사업과 더불어 유통시스템에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는 것, 둘째, 소비자 건강을 위해 고품질·안심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것 셋째, 공사의 이해관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상생·발전의 도매시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 마지막으로 공기업으로서 신뢰 회복 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추진하는 일의 목적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사 내부적으로는 맡은 바 소임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청렴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관계기관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부단히 소통하여 도매시장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공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7.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공사에게 맡겨진 소임인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보다 다양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출하와 구매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유통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더불어 공사와 유통인단체가 협력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김장나눔 등 도매시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도매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공사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8. 사장 후보자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지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시설 부족·교통·환경·주차·질서 등 대부분의 문제점은 최초 계획한 시설용량(4,680톤/일) 대비 거래물량 과다(약 1.8배)에서 발생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거래제도,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유통·물류시스템 개선 등 운영시스템도 선진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시설현대화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장기간의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갈등 및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재임기간 중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지도와 지원도 절실한 만큼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현재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안심·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40% 유통」, 「안전한 먹거리 유통」, 「가락시장 현대화 2025년 완성」, 「고객만족, 청렴도 우수기업」이라는 4개의 전략목표 세우고 있습니다.
-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은 전략방향과 구체적 전략과제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도매시장 유통질서 확립, 신성장유통채널 확대
 - 안전먹거리 체계 고도화
 - 도매시장 안전식재료 유통, 학교급식 안전식재료 공급
 - 친환경 선진도매시장 구현
 - 도매권역 시설현대화, 가락물 활성화, 환경 친화적 시장 조성
 - 공사 역량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경영효율화 및 조직역량 강화, 나눔 및 고객만족경영 강화

10. 현재의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경영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경영전략은 무엇인가?

-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2017.10월 ‘안심·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으로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저온유통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안심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현재의 공사 비전은 공사가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략방향이나 전략과제는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어 이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
- 전략 과제 중 ‘가락물 활성화’도 ‘청과직판 활성화’로 과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사의 비전 체계는 취임 후 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경영상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재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의 당면과제는 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② 청과직판 활성화와 도매권역에 잔류중인 청과직판 상인들의 가락몰 이전, ③ 경매제 중심의 거래방식 다변화 추진, ④공기업으로서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잠시 중단 상태에 있는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원(KDI)에 필요한 자료 제공, 현장 설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검토 기간을 최소화 하고 재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채소2동 실시설계를 재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농수산물공사의 책임·자율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설립 목적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 공사와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공사에 위탁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자율 경영을 추진하되, 중요한 사항과 서울시와 관계 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기관인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서울시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공사에도 시정철학과 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서울시에서 30여년을 근무한 만큼 향후 서울시와 공사와의 관계를 보다 상호 협력적인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견해와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

-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지방공기업법」 과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 산물을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산하 지방공 기업입니다.
- 공사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 인 서울시의회의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 될 때 원만하고 성공적으 로 추진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필요시 수시로 의원님을 찾아뵙고 고견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추진업무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반되 는 경우가 많아 많은 민원인들이 시의회를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만큼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거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또한, 시의회 주관 간담회나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

건을 개선하는 등 서울시의회와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공사에서 추진하는 중점 추진사업은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고 의원님 들께 보고 드리거나 충분한 설명을 드려 사업의 추진목적이나 효과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사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만일, 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원인과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대안이나 방향을 사업계획에 반영·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는 주요 업무 추진시 서울시와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설립 목적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예를 들면 수익 창출과는 무관하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사에서는 매년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 확충, 각종 검사약품 구매 등에 매년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공사의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수익 창출 가능성도 사업추진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규 사업 추진시 사전에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수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에 따라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여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신임 사장으로서는 새롭게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 또는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업무영역이 있는가?

- 현재 공사는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거래제도 다변화, 하차 거래 중심의 물류체계 개선, 도매시장 수출전진 기지화, 온라인 도매시장 등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제 임기 중에는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7. 현재까지 서울농수산물공사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잘못된 사업 또는 공사가 추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공사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성장·발전하면서, 대체로 그 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상장경매 정착, 전자경매 도입, 상장예외품목 도입, 최근의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추진 등 물류 효율화 사업, 그리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친환경학교급식사업까지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았던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소홀했거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연되었거나, 친환경학교급식과 같이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면서 공사의 역할이 오해를 받았던 경우는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거래제도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특정 유통주체나 언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제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공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공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저는 직원들이 자부심과 청렴성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각자가 자부심이 있어야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수많은 유통인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이해관계 조정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 그 다음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상호간에, 부서간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다고 판단되는 업무라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창의적으로, 스스로 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업무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관행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19. 부정·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반부패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반부패와 윤리경영은 공공기관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가 청렴 선도 우수기관으로의 도약을 통해 ‘안전·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첫째, 범 도매시장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공사 내부적으로는 임원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 부서장 중심의 ‘명예 청렴자율준수관’과 실천조직인 ‘청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 외부적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과 유통인으로 이루어진 ‘유통인 청렴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공사와 도매시장 내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의무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유통인 청렴 TF’와 함께 도매시장 내 반부패 청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 유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셋째, 공사 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회계 분야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각종 민원사항 처리결과, 법인카드 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패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넷째, 부정부패,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여 조직 내부의 불만과 내부 부조리를 적극 발굴·해소하겠습니다. 외부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채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부패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감찰활동을 확대하여 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적발된 부패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부패행위 연루 임직원 징계 강화, 금품 향응 수수 직원 의무적 형사고발 등 실효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0.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4년까지는 우수등급인 「나 등급」 이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나, 2015년부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비용과 자회사 용역비의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용역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무성과 하락으로 「다 등급」 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2018년도에는 동일 평가군에서 1위를 달성하여 「나 등급」 을 받았으나,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 을 받기 위해서 2가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첫째, 경영평가에서 많은 비중(18점)을 차지하는 재무성과를 지속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재무 건전화 6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재무성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동시에 현대화사업 관련 비용을 재무성과 지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지표 개선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 둘째,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켜 정성지표 배점이 상향되는 추세(40점→45점)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직원들의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위한 교육은 물론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직원들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켜 정성지표가 제대로 평가받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민은 물론 출하 농어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 정원의 인력의 통합 관리 · 운영 방안에 대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저는 정원 외로 운영하던 인력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사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 서울시의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17.8)에 따라 현재 정원 외로 운영하던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동안 정원 외로 운영해 오던 67명에 대해 육아휴직대체자나 고도 전문직 등 8명을 제외한 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59명의 세부 전환 방식(직군, 직렬, 임금테이블, 경력 인정 등)을 노조와 협의 중에 있으며 머지않은 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2.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관리 방안은 무엇이고, 내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조직의 구성 형태를 내부조직과 외부조직으로 구분해 보면 우선 내부조직은 공사와 자회사로 조직되어 있고, 공사 직원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회사는 현장 중심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때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사와 미미한 갈등관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행정직과 기술직은 같은 부서에도 혼합 편제하여 근무하는 등 우려할 만한 갈등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외부조직인 시장의 유통단체를 보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직관·임대상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 갈등관계가 발생합니다.
- 이들의 갈등 문제 및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통합과 조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3.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원칙과 대책은 무엇인가?

- 먼저 직원의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및 직무능력 중심(NCS) 기반의 채용을 통해 채용 비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기준과 방식도 사전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원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인사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학연, 지연, 그 밖의 인맥을 염두에 두는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직무종류 및 전문성 등에 따라 경력·전공·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무중심의 직위공모제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 직원들과의 잦은 소통을 통해 인사 고충을 경청하고 개선해 나갑니다. 부서별, 직렬별, 입사 기수별로 직원들과 자주 만나겠습니다.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인사 고충까지 직원들의 정서를 몸으로 느끼고 이를 인사업무에 반영하는 열린 인사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하거나 공식적이고 정당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공정인사를 저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은 인사문화를 만들겠습니다.

24.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추진사업에 대해 노조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저는 서울시 재직 시절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논의를 통해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수립하였고, 노조와 사업조합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한 첨예한 대립을 종합 조정하여 택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 제가 앞으로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동이사를 주요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사장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노조와 소통하고 계획의 실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5. 서울농수산물공사에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친환경유통센터 3곳, 자회사 2곳이 있는데 공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의 수요와 경쟁에 적합하도록 인력구조, 조직구조 등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친환경유통센터는 강서시장에 제1센터와 제2센터가, 가락시장에 제3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강서와 가락시장으로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 조직 및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다소 비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현재 3개의 유통센터를 통해 832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1·2센터의 공급용량이 700개, 3센터 공급용량이 600개여서 어느 한쪽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서와 가락시장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학교까지의 물류거리나 시간은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느 한쪽에서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검토 하겠습니다.
- 공사의 출자회사는 공사가 100%(3억원)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 주식회사)와 50%(30억원)를 출자한 출자회사(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 정산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는 교통, 주차, 시설물 관리 등 현장관리가 주요 업무이며, 출자회사는 상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들의 출하대금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출자회사는 유통인단체의 자체 운영으로 출자금 외에 별도의 공사 예산지출은 없으나, 자회사의 경우에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매년 비용이 상승하여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정년퇴직자 충원 억제 등을 통해 인력을 단계별로 효율화 하여 공사의 예산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사 · 조직관리 관련)

26. 서울농수산물공사의 자회사 규모가 본사보다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용역비 증가로 인해 본사의 경영수지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자회사 운영 개선에 대한 생각은?

- 공사 자회사(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 주식회사)는 2013.12월에 설립되어 주차, 교통, 청소, 시설관리 등 주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4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자회사 용역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자회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오다 2017년부터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매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10% 이상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18년 생활임금 : 9,211원/시급('17년 8,197원 대비 12.4% 상승)

- 향후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출입문 축소(15개소 → 5개소), 주차요금 무인 정산기 확대 설치, 교통 동선 단순화, 주차·교통 환경 쾌적화 등 도매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자회사 전체 직원(482명)의 52%(249명)에 달하는 주차관리 및 교통/질서 분야 직원 중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 발생시 신규 충원을 억제하여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Ⅱ.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7. 인구고령화 및 인구 감소, 인구·가구변화에 따른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전략은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2017년 통계청 전망자료 및 서울통계 연보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7년 986만명(총인구의 19.9%)으로 2010년 이후 6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45년 881만명(총인구의 17.3%)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가구수는 2017년 381만 가구에서 2045년 365만 가구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시 세대수는 2011년 이후 증감을 반복, 2016년 419만 세대를 기록했으나, 평균세대원 수는 2.3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평균연령은 2016년 41.1세로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여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2005년 9.4명 부양하던 것이 2016년에는 1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한편 고령화로 서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 737만명에서 2045년 508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비단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청장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락시장을 비롯한 도매시장도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인구 감소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사과나 배 같이 15kg 단위의 대규모 박스로 거래되는 농수산물은 1kg, 3kg, 5kg 등 소포장 형태로 출하되도록 산지의 출하형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현재는 도매시장의 경우 대부분을 원물 농산물 형태로 취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1인 가구의 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즉시 요리가 가능하거나 1차 가공된 소포장 형태로 가공하여 취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의 운영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도매시장의 경우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관계로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층이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 1일 8시간, 주5일제 근무체제가 도매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경매시간 및 휴무일 조정 등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향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대응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8.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현안 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현안 과제는 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② 청과직판 활성화와 도매권역에 잔류중인 청과직판 상인들의 가락물 이전, ③ 경매제 중심의 거래방식 다변화 추진, ④공기업으로서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잠시 중단 상태에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원(KDI)에 필요한 자료 제공, 현장 설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검토 기간을 최소화 하고, 서울시, 기획재정부, 지역구 국회의원, 유통인단체 등과 적극 소통·협력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의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유통인 및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9.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원예농산물의 약 22%가 거래되는 최고·최대의 중앙도매시장으로서 중앙정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정책의 핵심입니다.
-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중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배추 포장화 및 펠릿 하차거래 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고 지원이 70%(보조 30%, 용자 40%)로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인 만큼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배추 포장화 및 펠릿 하차거래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와 금년까지는 포장화에 따른 출하자 비용 보전을 공사 예산으로 충당해 왔지만 배추는 거래규모가 워낙 커서 반드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약 88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평가업무 이양, 상장예외품목 허가 조건 조정 등 농안법 개정도 필요한데 이 또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허심탄회하게 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협의하여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고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0. 해외 도시의 도매시장과의 경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방향은 무엇이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보완해야 할 정책분야와 사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도매시장과 해외 선진 도매시장과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거래방법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경매'를 거래의 주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도매시장은 '수의거래'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지 출하단체의 조직화 및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경매뿐만 아니라 수의거래에 의한 거래방법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도매시장에서의 온도 관리의 유무입니다.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경매장은 여름철과 겨울철 온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지에서 농산물이 저온상태로 도매시장에 반입되더라도 도매시장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상품성이 빠르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도매시장은 적정 온도로 항상 온도 관리가 되는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가락시장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경매 외의 다양한 거래방법(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적정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31. 서울농수산물공사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채가 대폭 증가 한 바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에서 평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생산 농어민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입니다.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교통 혼잡 문제 해결, 유통·물류 공간 확대, 미래 유통환경 대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서는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공사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연간 60~80억원 정도의 흑자기관이었지만, 주요 수입원인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요율이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고 추가 수입원 발굴도 어려워 약 4,256억원의(총사업비 7,493억원 기준) 융자금 상환은 공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우선, 현재 3% 고율로 되어 있는 농안기금 이자율 인하를 조속히 확정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경비 등 예산 절감과 함께 공사의 추가 수익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시설사용료 요율의 단계적 인

상 검토와 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용자금에 대한 서울시 부담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2.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공사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는데 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출하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로서, 서울시민 먹거리의 50%를 공급하는 (청과 기준) 공급처로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그러나, 현재 당초 설계 물량(4,680톤/일) 보다 1.8배가 많은 일 평균 8,233톤(연간 250만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유통·물류시설 부족, 시장 내·외부 혼잡, 시설 안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거래방법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도 시설현대화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가락시장은 물류 효율성 향상, 신선·안전 농수산물 거래기반 구축, 환경 친화적인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 이익은 서울을 비롯한 2천만 수도권 시민과 250만 생산농어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유통인, 출하자, 구매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복잡하고 상충되는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사업비 추가 확보와 공사 재정 부담 능력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 서울시,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33. 가락시장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매시장이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그동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자들이 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울시 출신 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소통 대책은?

- 제가 농식품부 출신이 아니다보니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으나, 저는 서울시에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중앙정부나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소통 및 협의를 한 경험이 많고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정부기관 인사들과 나름의 폭넓은 인맥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할 때 정부와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전동차 추가 구매 국비 지원과 지하철 1~4호선의 노후시설 개량비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농식품부 출신 전임 사장들이 한걸음으로 정부와의 소통 노력을 하였다면 저는 두 걸음 더 뛰는 소통 노력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농안법 개정 등 정부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34. 서울농수산물공사가 시설현대화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2019년부터는 원금상환도 해야함. 이에 따라 공사의 재정상태가 악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공사는 그동안 이자만 납부해 오다 2019년부터는 원금 상환 시점이 도래하여 2045년까지 총 4,256억원(원금 2,997억원, 이자 1,256억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 공사의 주 수입원인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법정 요율로 정해져 있고 임대료 및 주차료 역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현대화사업 원리금 상환, 자회사 관련 비용 증가, 안전성 강화 추진 등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정부 융자금 이자율 인하(3% → 2.15%)와 학교급식사업 서울시 위·수탁계약 체결(연간 23억원 수지 개선 효과) 등 자구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 공사에서 시설현대화 융자금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시설사용료 요율의 단계적 인상 검토와

현대화사업 국고 용자금에 대한 서울시 지원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협 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35.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도매권역에 임시로 남아있는 청과직판과 식품관련상가 상인들이 있음.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락몰로 이전이 필요한데 이들을 어떻게 이전시킬 계획인지?

- 청과직판상인 총 661명 중 485명이 가락몰 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 176명이 도매권역 임시부지에 남아 있습니다.
- 도매권역 임시부지에 잔류 중인 176명은 '19.9월까지 가락몰로 이전하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17.5)되어 있으며, 가락몰에 점포도 이미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과거와 같은 이전 지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락몰 이전까지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세부적인 이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전대상 상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으로는, 가락몰 조기 이전 유도를 위해 청과직판 매장 등의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개선된 가락몰 영업 여건을 홍보하고 기 이전자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며, 현 도매권역 임시매장 사용과 관련한 불·탈법 행위를 엄단하는 등 조기 이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관련상가는 총 이전대상 108명 중 46명이 가락몰로 이전하였고 62명이 도매권역에 잔류 중입니다. 당초 식품종합상가 일부는 도매권역 잔류를 검토하였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식품종합상가 전체가 가락몰권역 이전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전 필요면적($2,361m^2$) 대비 가락몰 공실면적($397m^2$)
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가락몰 북측 정수탑 부지에 '가락몰 물류센터'를 건립한 후 '21.8월
까지 잔류상인 이전을 완료하여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36.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이 2004년에 4,686억원으로 산출하였다가 2005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5,04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2010년도 전체사업이 7,582억원으로 늘어났음. 2018년도에는 이 보다 훨씬 더 증액된 9,481억원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음. 이 같이 당초부터 부족한 예산임을 알면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발생될 사업변경 등으로 늘어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는 2005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5,040억원으로 확정된 이후 2009년 기본계획 보완시 6,660억원, 2016년 도매권역 계획 보완시 7,483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 이후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 중간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도매권역 전체 사업비를 재산출한 결과인 9,481억원으로 기재부에 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기재부는 이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설현대화 사업비의 40%를 공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는 공사에게도 큰 부담이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증액 내용을 보면 법적비용(물가상승, 신재생에너지 확대, 조정 면적 증가 등)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 설계에 반영된 복층화 및 정온시설 등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사의 사업비 부담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재 농안기금 이자율 인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비용 절감 및 추가 수입원 발굴 등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공사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용자금 분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7.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 중심의 도매시장, 어떠한 유통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미래형 도매시장을 꿈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도매시장의 경쟁력은 신속한 물류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거래 공간과 집배송(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류 동선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앞으로는 도매시장도 저온 신선 유통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콜드체인시스템 등 저온 유통 체계를 갖추고 소분, 가공, 포장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 이와 더불어 향후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경매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제도 운영에 대비하여 시설을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적인 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가락시장은 이례적으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여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 서울농수산물공사 거래제도 관련 2004년 개장한 강서시장의 거래제도 병행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강서시장은 2004년 전국 최초로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개설하여 동일 시장 내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수의매매제), 즉 2가지 거래제도가 병행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 개장 당시에는 경매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운 시장도매인제 시장으로 물량 쏠림현상이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많은 유통학자들이 예측했지만, 개장 13년이 지난 강서도매시장의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거래 비율은 거래물량은 50:50, 거래금액은 40:60 수준에서 연도별로 소폭의 변동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난 13년 동안 강서도매시장은 거래물량은 52%, 거래금액은 126%나 성장했지만 거래제도별 거래비중은 일정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서로 건전한 경쟁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출하자와 구매자들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양쪽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저는 출하자와 구매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출하처와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한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39.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경매제도와 정가·수의매매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경매제도는 다수의 중도매인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 농수산물을 사고파는 거래형태로서, 중도매인이 구매 희망가격을 제시하면 도매시장법인 소속의 경매사가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입니다.
- 정가·수의 매매는 경매 절차 없이 협상에 의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로 나뉩니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미리 판매예정가격(최저가격)을 정하여 출하하는 것으로 구매자인 중도매인이 해당 가격과 물량을 수용하면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이고, 「수의매매」는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출하자와 구매자가 1:1로 협의하여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거래방식입니다.
- 경매제는 공정성·투명성에 장점이 있는 반면, 당일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정가·수의매매는 1:1 거래로 투명성에 약점이 있는 반면 경매제에 비하여 가격 변동성이 적으며 가격 결정 과정에 출하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외에 시장도매인제와 상장예외품 목 거래 또한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1:1로 협의하여 가격과 수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정가·수의매매에 해당됩니다.

(거래제도 개선 관련)

40. 서울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에서 상장품목과 상장예외품목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며, 그 차이는 무엇인가?

「상장품목」이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상장예외품목」은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 또는 매수하여 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농안법은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장품목」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으나, 「상장예외품목」은 상장예외거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도 거래를 할 수 있어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서로 취급 경쟁을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거래제도 개선 관련)

41. 서울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은 거래제도의 다양화, 다시 말해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거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첨예한데,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 과거 위탁상의 폐단(가격 후려치기, 대금결제 지연, 거래정보 미공개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투명성에 장점이 있는 경매제를 1991년 가락시장에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주요 거래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매제는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하루에 한번만 거래하는 경직성으로 상품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 경매제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에 상장예외품목 도입, 2000년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2013년에 거래방법의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익매매를 경매 또는 입찰과 동등한 매매방법으로 정하는 농안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 경매제나 수익거래제도(시장도매인, 상장예외거래)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농안법 입법 취지에 맞도록 거래제도 간의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사가 추구해야 할 거래제도에 대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42. 가락시장 거래제도를 두고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음. 여전히 도매법인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매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가·수의매매를 더욱 확대시켜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앞으로 거래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경매나 수의거래(시장도매인, 상장예외거래)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거래제도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사가 추구해야 할 거래제도에 대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 현재의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유통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위탁수수료 담합, 막대한 영업이익 대비 미미한 출하자와 판매자 지원, 표준하역비의 출하자 전가 등)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를 기본 거래제도로 유지하되,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의거래를 점진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한 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

하여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매권역 채소2동에 일부를 도입하고,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적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그리고 매년 품목별 거래실태를 분석하여 상장예외품목 지정도 확대하여 도매 시장법인의 경매거래와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거래제도간, 유통주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유통시간 단축, 출하 선택권 보장 등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도매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3. 최근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하차경매를 두고 제주 농가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공사는 금년 9월부터 농산물 하차경매를 시행키로 했고, 제주 농가들은 물류비 부담 가중 등 이유로 즉각 종단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양배추 포장화 및 팻릿 하차거래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육지와 달리 해상 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증가하고, 운송 문제와 포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차거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육지에서 생산되는 양배추는 금년 9월 1일부터 하차거래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 농가에서 요구하는 시행 시기 유예는 하차거래 정책 수행의 일관성 및 타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 서울시장님과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시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 시기 유예는 불가하며, 제주도 출하자 대상 물류비 추가 지원은 검토하겠다고 협의함
- 제주 양배추보다 물량이 많은 제주 월동무의 경우에도 이미 작년 12월부터 전면 박스 포장·팻릿 하차거래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 4월부터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조생 양파도 팻릿 하차거래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도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운송 문제의 경우는 자동화물 이용시 기존 컨테이너 출하 대비 운송비가 감소

하며, 자동화물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이용 해상 운송 후 환적 출하도 가능합니다.

- 물류비의 경우, 종이 박스 포장뿐만 아니라 기존 망 포장 출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장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타 품목 하차거래 사례를 보면, 경락가가 최소 10% 이상 상승하였고, 재 철폐(5%)로 인한 경락가의 상승으로 물류비 상승분에 대한 보전이 가능합니다.
- 공사에서는 포장 및 펠릿 하차거래에 따른 물류비 일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출하자에게 펠릿당 포장 방식에 따라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 농가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추가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제주산 양배추의 포장 및 펠릿 하차거래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제주도관계자들과 구성·운영 중인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협의체」를 통해 제주산 양배추의 출하시기인 12월 전까지 문제점 해소 등 지속적 협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제도 개선 관련)

44. 가락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불법거래와 무질서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임. 불법거래와 무질서에 대한 대책은?

- 가락시장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에 전담부서(시장개선 팀)를 신설하고, 거래질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무허가상인, 노점상 등 불법거래나 무질서가 남아 있습니다.
-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하드웨어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은 소프트웨어적 운영시스템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진정한 명품 도매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핵심은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앞으로 가락시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된 불·탈법적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노점상과 수산 무허가상인 문제는 생존권과 기존 제도권 유통인들의 영업권 문제가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들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및 외부 전문가의 도움(연구용역 등) 등을 받아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등 관련)

45. 서울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이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 1998년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이래 공사에서는 매년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안전성검사기관 지정(2013) 및 도매시장 집중 검사법 도입 등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매시장에서의 샘플 채취(일평균 92건) 방식의 안전성검사만으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성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품목이나 잔류농약이 다빈도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농약 안전 살포 등 안전성에 대한 산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등 관련)

46. 서울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내 수산부류의 냉동어류 무허가 분산상인 100여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수산중도매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고 알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 수산 무허가 분산상인은 대부분 가락시장 개장 초기부터 중도매인의 종업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경매장에서 독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현재 101명이 활·선어와 냉동부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2004년 대중선어를 취급하던 129명이 양성화된 사례가 있어 무허가 분산상인은 그 동안 집단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성화 요구를 해 왔습니다.
- 기존 중도매인의 반발 등으로 제도권 흡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도매능력이 있는 상인의 선별적 제도권 흡수와 함께 소매 역할에 머물러 있는 상인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 저는 이러한 기존의 고민내용을 분석하고 기존 중도매인과의 갈등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유통인 합동 TF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등 관련)

47. 최근 서울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조정한 개정조례 시행규칙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시행규칙 무효확인 소송, 바나나·쪽파·수입당근 상장애외 품목 지정 취소 소송 등 공사나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 도매시장법인이 이러한 행태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지?

- 현재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서울시나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요 소송은 도매시장법인의 매출액이 되는 위탁수수료의 징수 한도를 축소 조정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관련 건과 바나나·포장쪽파, 수입당근에 대해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래방법(상장애외품목) 지정 관련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 도매시장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출과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매시장법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지분 및 소유 관계를 보면 5개 도매시장법인 중 1개 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기업의 계열사 혹은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과거에 비해 공공성 보다는 수익 위주의 법인 운영을 하게 된 영향도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소송 진행 건들은 유통비용 절감 및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확

대를 위한 조치로서 공사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공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와의 소통 및 면밀한 사전 법적 검토를 통해 소송의 발미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등 관련)

48.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 친환경유통센터 3곳을 통해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자치구별로 급식센터를 개설하여 친환경센터의 기능이 정체될 가능성이 보임. 친환경유통센터의 강점은 무엇이며, 향후 발전계획은 있는지?

-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체계적인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 총 3개 센터의 처리용량은 1,300개교로 '18.9월 현재 873개(전체 급식학교의 약 65%)의 서울시 초중고교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급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기초자치단체(자치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물류 기반시설 없이 쌀, 김치, 수산물 위주의 공동구매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자치구 학교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축산물은 대부분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 ※ 최근 자치구 개설 공공급식센터는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재료 공급 추진 중
- 친환경유통센터는 물류시설 제공, 안전성검사, 검품·검수, 수발주시

시스템 운영, 산지 및 가격 관리 등 공공조달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규모는 연간 2만 4천여 건으로 학교급식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성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향후, 계약생산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 향상,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식재료 가격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 타)

49.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는 지난 3년간 가락시장을 기반으로 한 농수산물 수출의 해외수출 지원과 사이버도매시장 운영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하였음.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 공사는 도매시장 활성화 및 정부의 농식품 수출 진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품목 구색을 갖춘 도매시장의 장점을 활용한 도매시장 기반 수출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물류시설로는 가락시장 내 사무실, 작업장, 창고시설을 보유한 '수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 협의체로는 40여개 업체로 구성된 '수출유통인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를 통해 2016년 사업 첫해는 62억원, 2017년 75억원, 올해는 2분기까지 23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여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사이버 도매시장은 유통인의 판매채널 확대 및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공을 위해 '15.4월 수발주시스템(B2B)을, '15.10월에는 쇼핑몰('가락24', B2B·B2C)을 오픈하였습니다.
- 사이버 도매시장 오픈 첫해인 2015년에는 39억원, 2016년 280억원, 2017년 587억원으로 거래규모가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구매자, 판매자 등 거래참여자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 두 사업모델 모두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 타)

50. 전임 사장님이 최근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 하였음. 사장 교체시기라 개편이 늦춰지면 조직 운영이 느슨해 질 수 있음. 공사의 직제와 정원 변경에 대한 생각은?

- 전임 사장님 재임 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18.3~6월)을 통해 공사의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고, 공사에서는 정원 외로 운영 중이던 무기계약직 등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해서 정원 조정과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59명의 세부 전환 방식(직군, 직렬, 임금테이블, 경력 인정 등)에 대해 노조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 계약직 등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노사 협의가 마무리 되면 먼저 정원 조정(298명 → 361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직제 부분은 기존에 마련한 안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할 부분을 반영하여 내년 3월 정기인사 전에 개편할 생각입니다.

(기 타)

51. 최근 전문지 언론보도는 서울농수산물공사가 일방적으로 유통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있음. 언론, 산지, 유통종사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제도 다양화, 차상거래품목의 포장화 및 팻릿 하차거래 추진 등의 사업은 이해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는 있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기관이나 외부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비춰지는 것은 공사의 소통 노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해당사자간 소통을 보다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타)

52. 서울시 투자기관으로서 서울농수산물공사가 혁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 공사는 현재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가락물 명소화, 하차거래·공동물류 도입 등 유통·물류시스템 개선, 거래제도 다변화 등 시설 및 운영 측면에서 획기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공사의 혁신과제를 3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첫째, 시설현대화사업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으로 거듭나는 것
 - 둘째, 고객 서비스 강화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으로 믿음이 가는 친절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
 - 셋째,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중심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여 출하자와 구매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발전을 선도하는 시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열린 마음과 귀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유통행정 추진으로 최선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공사의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의 업무방식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 현장이 중심이 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